

베트남 호치민 10월 보고서





1. 활동 내용

1)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2) UTE Korea Center

3) Disabled Children Club

10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베트남어 기말시험	3 박준영 귀국
4	5 Hope School	6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7 Disabled Club	8 UTE Korea Center	9 UTE Korea Center	10
11	12 Hope School	13 김판겸 귀국	14 한국어 수업 준비	15 UTE Korea Center	16 UTE Korea Center	17
18 Saigon Square 및 시티센터 나들이	19 Disabled Children Club	20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21 한국어 수업 준비	22 UTE Korea Center	23 UTE Korea Center	24 StudyinKorea 설명회
25	26 Disabled Children Club	27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28 한국어 수업 준비	29 UTE Korea Center	30 휴식, 일정 피드백	31 한국식당, 나들이



Le Dinh Chinh Primary School에서 우리는 교실에서 필요한 게시판을 꾸미는 일을 했다. 선생님들도 비는 시간에 와서 계속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있으면 옹기종기 문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경한다.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모여서 음악과 함께 율동으로 몸을 풀고 있다.

UTE Korea Center에서 우리는 오전에 수업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서 한국 대학교의 정보를 알아보는 일을 도와준다.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한다. 수업에 오는 학생들은 주로 대학생, 한국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도 있었고, 한국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족한 선생님인 우리들을 따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준다.





이 곳에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식사를 돕고,
마사지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활동을 한 곳은 아니지만 저희
에게 가장 즐겁고 보람되는 활동입니다.



2. 라온하띠 숙소 소개





YMCA 건물 외부 모습입니다.

저희 베트남 팀은 YMCA 건물 3층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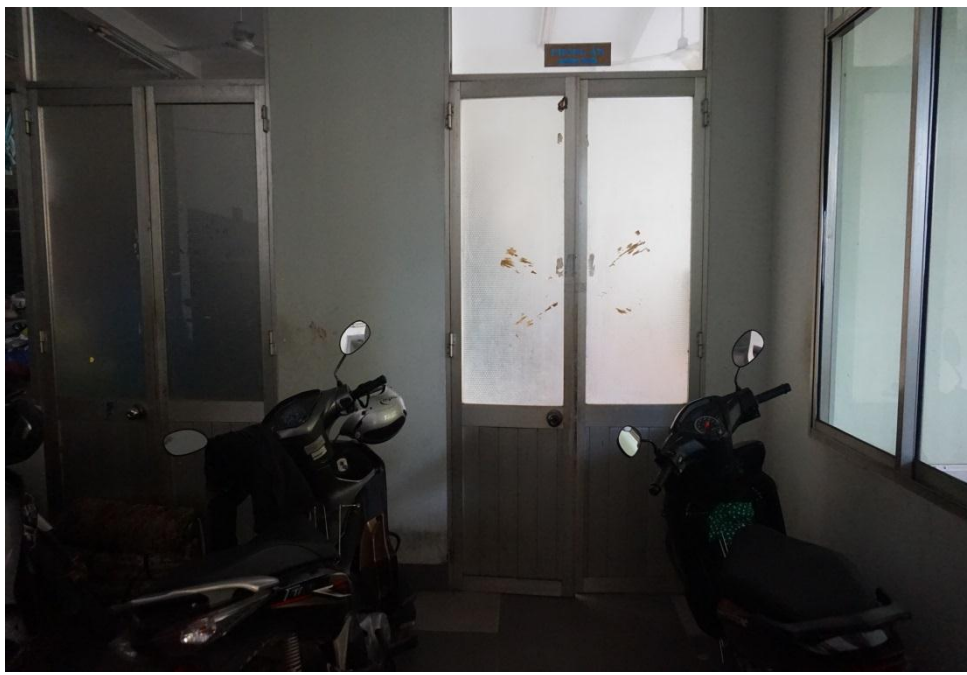
지금부터 저희 숙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보이는 오토바이들!
1층에는 YMCA 직원들이 출근 할 때
타고 온 오토바이들로 항상 꽉 차있습니다.



1층 오토바이들 사이로 보이는 문!
들어가 볼까요~



짜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주 가끔) 요리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부엌은 쥐와 도마뱀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쥐와 도마뱀을 보면
소리지르며 도망가곤 했었는데요.



이제 베트남 생활 2개월 차 저희에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박수치기) 



부엌 옆에 있는 또 다른 문!!



지난 9월 저희 팀이 베트남어 공부를 하며
한달 내내 있었던 곳인데요.

바로 Study Room!!

현재는 달는 나눔을 할 때,

현지 코디네이터들과 상의 할 일이 있을 때

이용하곤 합니다.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YMCA

건물 2층은 다른 회사가 일하는 곳입니다.

3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YMCA사무실이 보이는데요!

YMCA 사무실과
LUU Van Loc 총장님의 사무실을
지나쳐 복도 끝,



라운아띠 베트남 팀의
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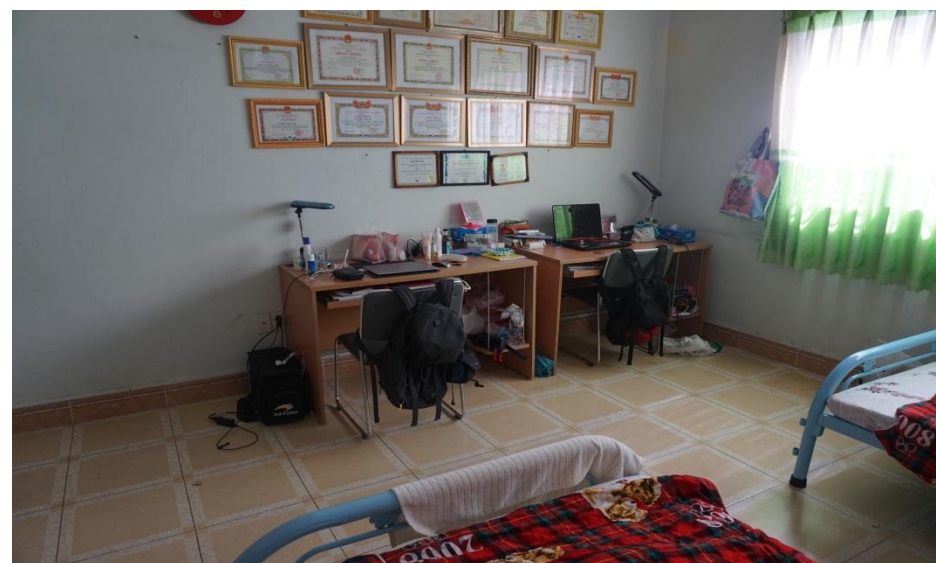
저희의 방을 소개합니다!!



뚜루 뚜루 뚜~뚜루 뚜룰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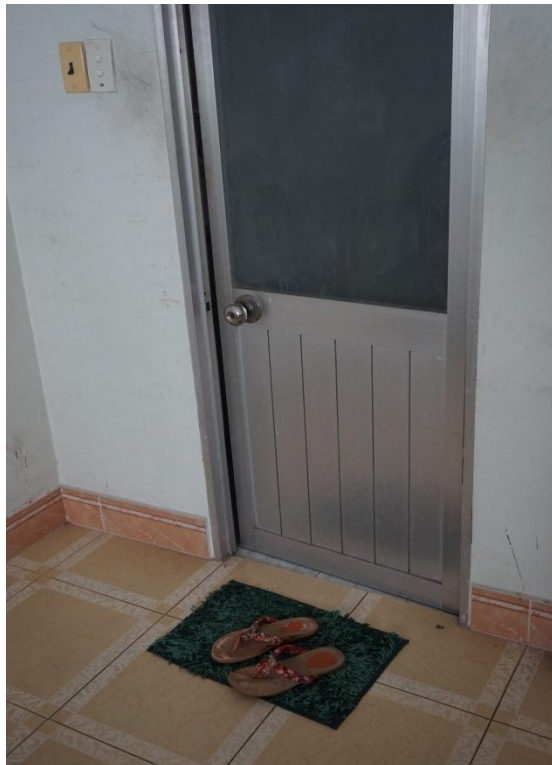
넓은 방,
푹신푹신 하루의 피곤을 덜어줄 침대와,



보고서 작업, 베트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책상까지~



방 한 쪽에는 넓은 옷장도 보이고,
그 옆에 또 다른 문도 있네요!



바로 화장실!!

베트남 팀 방 안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 층 더 올라가 보면 4층, 옥상이 나오는데요.



옥상은 저희 팀이 YMCA 건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예요.

3. 개인별 에세이



10월, 각자의 이야기

10월, 희주의 이야기

10월 한 달, 정말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함께 낯선 곳에 와서 서로를 의지해야 할 팀원들이 떠나가는 상황, 팀원들이 한 명씩 중도귀국을 할 때 마다 느껴지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었다. 처음 한 명의 단원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셋이 남게 되었을 때, 그다음 둘이 남게 되었을 때도 남은 단원들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다짐도 무너져갔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꼈고, 상황에 따라 모두 예민해지면서 일상에도 문제가 생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 활동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했다. 에세이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내가 이곳에 더 있고 싶은 이유는 조금 확실해졌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버텨주고 있는 슬빈이, 우리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현지 코디들, 지쳐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현지 친구들까지... 이곳에는 아직 나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음 달은 또 어떤 행복한 일, 슬픈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생활과 활동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10월, 슬빈이의 이야기

라온아띠 면접을 볼 때, 이별이 정해진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9월 베트남, 나는 그 만남을 시작했다. 만남은 정말 멋진 일인데 여기서의 만남은 어렵다. 예상했던 사실이지만 지금 이 곳에서 매일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3개월 후면 그럴 수가 없다. 벌써 이별을 생각하는 게 어리석을 수 있지만 자꾸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처음 왔을 때보다 조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이런 고민거리가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이별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 없이 남은 날들을 보낼 것이다.

베트남 호치민 11월에 만나요

